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23년 12월

선교편지 제 170호



복된 성탄을 시므온과 만나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희망찬 새해에도 한없이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필리핀에서 박인호, 이연지 드림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시 34:3)**

 지난 10월 셋째 주일, 감사절 예배를 주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벌써 디고스 예일 교회는 8년째, 아팔라야 예일교회는 3년째 감사절 예배를 드리지만, 이번에도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도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연고가 없는 이 곳에,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디고스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고, 주의 잃어버린 백성들이 마침내 주님을 만나 두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 인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금년에도 감사가 넘쳐 납니다.

1. 한 분, 한 분, 교인들의 얼굴을 보면서, ‘어떻게 이곳까지 와서 생면부지의 저들을 섬기게 되었을까?’ 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놀랍습니다. 주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더딜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 때마다 저들이 아닌 내 자신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주변의 선교사들로부터 현지 교인들로 인하여 겪는 어려운 소식을 들 때마다 가슴을 쓸어 내리며,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교인들을 보내 주셔서 지난 시간 동안 같이 성장하게 하신 것을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세례를 받기 전에 두 번의 세례자 교육을 통해서 ‘복음과 회개’ 그리고 ‘세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시간을 갖고, 자신만의 표현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합니다. 금년에 34명의 교인이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자 교육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고, 변화를 경험하는 교인이 많았습니다. 중심에서 나오는 저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회개를 통하여 밝아진 얼굴을 통해 도리어 제가 큰 힘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때에 세밀하고도 풍성하게 베푸시는 은혜에 깊이 감사합니다.
3. 말씀을 깊이 깨닫고, 온 삶으로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Servant Leader들이 굳건하게 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의 자리 뿐만 아니라, 소외된 교인들을 돌보는 복된 자리에도 앞장 서서 함께 수고하는 성숙한 Servant Leader들입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선교사임에도 전폭적인 순종으로 동일한 선교 목표를 향해 수고를 같이하는 동역자들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골 1:12)**

4. 많은 경비를 지출해야 하는 교회 비품을 살 때마다 복잡한 계산으로 초조해 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인들이 앉는 의자가 모자라서 더 사야 할 경우에는, 목돈을 지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파손된 의자를 교체 하기 위함 이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교인이 이전보다 더 증가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금년에는 두 번에 걸쳐 많은 의자를 구매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5. 그전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수고를 이 선교지에서 조금 더 깊이 체험적으로 이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계곡으로 찾아 나선 하나님의 마음을 어렵פות이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버려 두면 죽게 되는 잃은 양을 끝까지 찾으시는, 목자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깊이 알게 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6.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세 번째 마띠 교회를 마침내 건축하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시 9:1)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띠 교회' 건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은 이후, 관련 부서를 수차례 방문하여 마침내 건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기와 물'도 연결이 되었습니다. 4년 전 아팔라야 교회를 건축할 당시 함께 하였던 작업자들을 포함하여 모두 17명이 이른 아침부터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12월에 들어 섰지만, 이곳은 연일 100 °F (38 °C)가 넘는 무더위 가운데, 땀을 비 오듯 쏟고 있습니다. 때때로 지진과 열대성 폭우로 작업이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마띠 교회는 '성전, 친교실, 교육실, 사택'으로 구분하여 총 4동의 건물로 구성이 되는데, 제일 먼저 성전 기초와 기둥의 콘크리트 작업을 마치고 벽을 쌓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한편에서는 성전 지붕과 천장에 사용 될 철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각종 건축 자재가 곳곳마다 쌓여 있고, 그늘진 곳에는 작업자들이 먹을 물과 간식을 준비하여 놓고 시간에 맞추어 점심 식사도 같이 합니다.

참으로 영광스럽고도 감사하게, 이제 긴 호흡으로 마침내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띠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아름다운 교회가 건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학 1:8)





기도 제목

1. 디고스 예일교회 / 아팔라야 예일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2. 마띠 교회 건축을 위하여
3. 장학 사역을 위하여
4.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을 위하여

선교 사역에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Direct Bank Transfer: <https://www.zellepay.com> / ih.park@gmail.com
- Bank Account: Chase Bank / 110071151665 / Inho Park
- Check Mailing Address: Inho Park / 214-17 45 th Drive, Bayside, NY 11361

